

올 세계 반도체시장 “제로성장 가능성”

올해 세계 반도체시장이 「제로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미국시장조사기관인 스테이트(In-Stat)는 최근 반도체 수량에 대한 수요감소와 평균단가의 하락으로 올해 반도체시장이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인 스테이트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 하락세가 이어졌던 일본시장뿐 아니라 호조를 유지했던 북미시장도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유럽과 일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에서 판매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조사기관은 특히 올 1·4분기 판매액이 작년동기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하는 미 반도체공업회의 발표가 올해 전체 시장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올해 판매액이 지난해 규모를 웃돌기 위해서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 획기적인 수요증가 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 스테이트는 제품별로 호조가 예상되는 품목은 세미커스텀 IC와 아날로그 IC, 일부 마이크로컨트롤러 등에 국한된다며 주력 반도체인 D램의 경우 올해 판매액이 전년대비 20%나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조사기관은 특히 올해 D램 수요와 관련해 총비트수 환산 D램 수요증가율은 지난해 1.95에서 1.60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DVD롬 드라이브시장 폭발적 성장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롬 드라이브 시장이 올해 본격적인 이륙기에 접어들어 오는 2000년에는 미국과 유럽에서만 모두 4,500만대가 팔려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르면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DVD롬 드라이브가 DVD비디오 플레이어보다 시장이 늦게 형성되긴 했으나 고성능PC보급에 힘입어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몇년동안 급성장세를 기록, 플레이어시장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지난해 미미한 수준이었던 DVD롬 드라이브 판매는 올해 미국에서만 140만대를 기록하고 내년에 500만대, 2000년에는 2,500백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유럽에서의 판매량도 내년 500만대에 육박하는데 이어 2000년에는 2,00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스트래티지는 DVD비디오의 경우 현재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급이 일반화하기에

는 한계가 있는 반면 CD롬 드라이브의 대체 기록매체로 각광받고 있는 DVD롬 드라이브는 가정용 PC의 증가를 전제로 할 때 급성장세가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DVD플랫폼의 확산은 DVD타이틀 개발을 촉진해 결국 동영상과 화질, 3D 그래픽 기능이 크게 향상된 학습, 게임 타이틀의 일반화도 그만큼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LED전광판시장 '혼전'

LED 전광판시장에 일본업체가 대거 참여, 수출 전선에 나서고 있는 국내 전광판업체들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올랜도에 개최된 사인엑스포 전시회에 지난해와 달리 일본 전광판업체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형광방전램프(FDT)방식, CRT방식 등 고급·고가 제품 위주의 전광판 사업을 추진해왔던 일본업체들은 국내 업체와 같은 LED방식의 전광판을 중점 전시, 사업방향을 선회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국내업체와 일본업체간의 피할 수 없는 한판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기존 CRT방식의 전광판인 「점보트론」을 선보여왔던 소니사는 LED램프를 이용한 점보트론

을 새로 선보였으며 미쓰비시도 기존 CRT방식을 버리고 LED 방식의 옥내용 전광판인 「다이아몬드 비전」을 새로 개발, 전시했다. 이밖에 샤프·타키온·노리타케 등도 전광판용 LED 모듈이나 시스템을 전시, 일본 전광판업체들의 관심이 LED방식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줬다.

국내업체로는 유일하게 사인엑스포에 참가한 대한전광의 이원호 상무는 「LED전광판 세계 시장을 두고 대만업체와 시장경쟁을 벌여왔으나 이제는 전광판 기술 종주국인 일본업체와 치열한 시장 다툼이 예상된다」며 「현재까지는 국내 전광판이 기술력이나 가격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조만간 기술·가격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국내 전광판업체들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차량항법시스템 시장 급팽창

올해 세계 차량자동항법(카네비게이션)시스템 출하대수는 지난해 보다 26% 증가한 1백48만 5천대에 달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카네비게이션시스템 시장은 지난해 전년대비 16.2% 늘어난 1백23만5천대의 출하대수를 기록, 전체 카네비게이션시스템 시장의 90%를 차지한 일본 시장이 올해에도 전체 시장에서 80% 이상을 점유하면

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는 알파인, 파이어니어 등 카네비게이션시스템 생산업체들이 선보이고 있는 신제품이 대부분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를 탑재하고 있어 전체 시장에서 DVD탑재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23% 수준에서 올해에는 40%대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카네비게이션시스템 시장은 최근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DVD탑재 제품과 저가격화로 기존시장을 수성하려는 CD롬탑재 제품간의 2파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

무선 네트워킹 신기술 곧 발표

인텔·IBM·휴마·도시바·노키아·에릭슨 등 주요 컴퓨터·통신 업체들이 무선 네트워킹 신기술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노트북, PDA, 스마트폰 등 휴대형 네트워크 환경에서 무선 근거리통신망(LAN)보다 기기간 호환성을 강화한 무선 네트워킹 기술인 「블루 투스(Blue Tooth)」를 발표할 예정이다.

휴대형 네트워크의 데이터 전송속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기술은 무선 LAN이 10m 전송거리에서 1mbps 전송속도를 제공하는데 반해 전송거리를

30m로 확장하는 동시에 2mbps의 향상된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이 기술은 PDA 및 PC 사이에 전달되는 데이터를 동기화해 기기간 데이터 호환성을 강화했으며 또한 근거리접속시에너지 절전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인텔은 자사의 칩에 이 기술을 내장한 칩 세트를 개발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 중순경에 이를 기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방침이며 노키아, 에릭슨 등 통신장비 업체들은 이 기술을 응용한 이동통신 단말기 생산을 준비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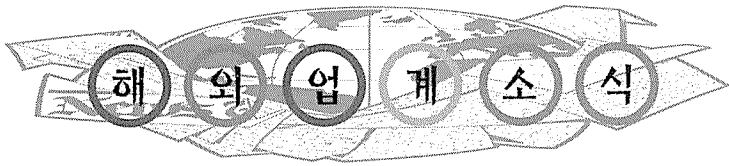
NEC, 차세대 메모리사업 강화

일본 최대 반도체업체인 NEC가 차세대 메모리분야 투자를 크게 확대한다.

NEC는 오는 2000년까지 차세대 메모리사업에 약 3천억엔을 투자, 미국·일본·중국에 차세대 D램을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NEC의 이번 발표는 메모리분야의 장기 불황으로 업계 전반에 생산거점 집약과 설비투자 감축 계획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같은 차별화 정책으로 NEC의 메모리분야 영향력은 앞으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NEC는 오는 2000년 중반까지 구마모토공장 내에 새 첨단공



장을 건설해 256MD램을 본격 양산하는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즈빌공장 부근에도 2001년 초 가동을 목표로 256MD램을 양산하는 새 공장을 건설한다. 이를 통해 2001년 말까지 일본과 미국을 합쳐 월 1,000만개 이상의 256MD램 생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NEC는 또 2000년 이후에는 야마가타공장에도 256MD램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내년 2월 가동을 목표로 중국 상하이에 건설하고 있는 64MD램 생산공장도 256MD램 생산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FDD용 시스템 LSI 개발

일본 미쓰비시전기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FDD)용 원칩 시스템 LSI를 개발했다.

새 시스템 LSI는 FDD에 필요한 리드 라이터, 스테핑 모터 드라이브, 센서리스 스피들 모터 드라이브, 시스템 제어 등 4개 기능을 1개 칩에 집적함으로써 소비전력 가격을 크게 낮춘 것으로 기존 제품의 경우 이들 기능이 2개 또는 4개의 IC로 구성돼 있었다.

미쓰비시는 오는 7월부터 개당 500엔에 샘플출하를 시작, 10월부터는 월 300만개 규모로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MS-히타치 PC서버 부문 제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일본 히타치제작소가 PC 서버 부문의 광범위한 기술제휴에 합의했다.

이번 제휴에서 MS는 현재 개발중인 차세대 서버용 운용체계(OS)인 「윈도NT 5.0」에 히타치의 중대형 컴퓨터 기술을 조합해 PC서버의 신뢰성과 성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MS는 무정지·백업 기술 등 자사의 취약부문인 기간업무 관련 주요 기술을 취득한 한편 히타치는 급성장하는 PC서버용 OS시장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는 윈도NT를 활용해 자사 서버의 개발·판매체제를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

MS와 히타치의 이번 제휴는 히타치의 중대형 컴퓨터 기술을 필요로 하는 MS와 윈도NT 지배력을 이용하려는 히타치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MS는 윈도NT를 중대형 컴퓨터 수준의 기간시스템으로 향상시킨다는 방침 아래 미·일 컴퓨터업체들과의 제휴를 적극 추진, 현재 NEC·디지털 이퀴프먼트·휴렛패커드(HP) 등 PC서버 주요 업체들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으나 중대형 컴퓨터 주력업체와의 서버부문 포괄적 기술제휴에서는 이번 히타치가 처음이다.

64비트 PCI 지원 패스트 이더넷 칩, AIC-6915 발표

아답텍社는 서버 중심의 패스트 이더넷 실리콘-AIC-6915 패스트 이더넷 MAC 칩-을 개발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한 64비트 PCI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도 개발해 출하한다고 발표했다. "듀라랜(DuraLAN)"이란 코드명의 AIC-6915는 서버의 성능을 염두에 두고 네트워크 실리콘을 설계한 최초의 제품으로 이를 기반으로 설계된 듀라랜 NIC에 아답텍 듀라링크(Duralink) S/W를 사용하면 대역폭 문제로 병목현상을 겪고 있는 기업 네트워크에 다운타임 감소, 기능 강화, 성능 향상 등이 가능해 서버 NIC시장에서의 성공을 가늠하는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AIC-6915 듀라랜 실리콘은 패스트 이더넷 MAC칩이다. 이 칩은 64비트 PCI를 지원하며 칩내장프로세서, TCP/UDP 체크섬 엔진, 8KB 내장버퍼, PCI 버스 분석기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듀라링크 포트통합(Duralink Port Aggregation), 장애극복(Failover) 및 서버관리자(Server Manager)를 지원한다.

AIC-6915는 IEEE 802.3x 호환 흐름제어 구조에 IEEE 802.3u 호환 10/100 매체독립적 인터페이스(MII:Media

Independent Interface)기능, 완전(Full) 및 반(Half) 이중방식(Duplex) 동작 지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통제되는 LED, 외장 8비트 부트 ROM과의 인터페이스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시장에 상품으로 나와있는 NIC와는 달리 아답텍의 NIC들은 서버성능, 업타임, 전산탄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서버 기능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멀티포트 NIC와 듀라링크 소프트웨어를 통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차별화를 구현하였다. 듀라링크의 핵심은 아답텍의 AIC6915 실리콘이다. ANA-69011/TX와 ANA-62011/TX는 둘 다 단일포트 NIC로서 ANA-69011/TX는 32비트 ANA-62011/TX는 64비트 PCI 슬롯용이다. ANA-62022와 ANA-62044는 모두 64비트 PCI NIC로서 전자는 2포트, 후자는 4포트를 지원한다. 이들 64비트 PCI NIC들은 32비트 PCI 슬롯에서도 작동된다.

중국 최대가전업체 '사천장흥' 정보통신기기분야 진출

TV를 주력으로 하는 중국 최대 가전업체인 사천장흥(四川長虹)전자집단이 정보통신기기 분야에 진출한다.

이 회사는 올해 안에 하화(夏華)전자 등과 손잡고 휴대전화

생산에 착수하는 한편 PC 생산도 추진해 전자와 정보통신을 겸하는 종합업체로의 변신을 꾀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 가전업계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기업 육성정책 영향으로 백색가전 최대 업체인 하이(海爾)집단이 AV기기 분야에 진출하는 등 「탈(脫)단품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사천장흥을 축으로 종합화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휴대전화에서 사천장흥은 조만간 하화전자·광주(廣州)통신연구소 등과 합작사를 설립하는 한편 복건성(福建省)에 공장을 설립해 초년도 50만대, 이후는 연간 300만대 규모의 휴대전화를 생산할 계획이다. 합작사는 자본금 2억위안(약380억원)이고, 출자비율은 사천장흥 51%, 하화전자 33%, 광주통신연구소 16%다.

이와 함께 사천장흥은 올해 안에 PC와 인터넷 관련 장치의 생산에도 착수해 이들을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천장흥은 매출규모 약 160억위안으로 중국 최대 전자업체로 올랐다.

주력사업은 TV의 생산규모는 약 660만대이며, 자국시장 점유율은 약 35%다. 올해는 900만대의 TV를 생산해 점유율을 45%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국 가전 해외진출 '용틀임'

중국 가전업계가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동과룡전기(廣東科龍電器), 하이집단(海爾集團), 미적집단(美的集團) 등 중국의 주요 가전업체들은 해외지역에 제품개발을 위한 R&D거점 및 생산거점을 설치함으로써 제품개발과 생산원가 면에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국 최대의 냉장고 생산업체인 광동과룡전기는 일본 고베시 포트아일랜드에 완공한 연구소 건물에서 미국·유럽 및 일본지역 연구개발인력을 채용해 냉장고 디자인 및 기술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회사는 가전부문에서 앞서 있는 일본에 연구소를 개설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간접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동과룡전기는 이번 일본 연구소 완공을 계기로 수출대상지역을 기존의 북미시장 중심에서 동유럽 지역으로 확대해 냉장고 수출비율을 지난해의 10% 내외에서 오는 2000년에는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냉장고 및 세탁기를 주력 생산하고 있는 하이집단은 지난 96년 일본 도쿄에 연구소를 설립할 것을 비롯해 최근 3년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랑스 리옹, 한국 서울 등 세계 7개국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수출용 제품개발에 활용할 마케팅 및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기기 안전평가제 日, 2000년까지 마련

일본 통산성이 오는 2000년까지 NEC·후지쯔 등 주요 정보통신기업체와 공동으로 기업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전도를 진단하는 「안전평가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이나 데이터파괴 등과 같은 「사이버테러」의 사전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안전평가제도는 컴퓨터로의 부정침입을 방지하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그 기준에 따라 안정도 등급을 매기는 전문평가기관의 설립 지원을 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 안전기준 마련에서는 정보통신기기의 안전대책에서 앞서있는 미국과 유럽 평가기준과의 공통화를 추진해 국경을 초월하는 전자상거래의 보급확대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통산성은 우선 이달말 관련단체인 정보처리진흥사업협회(IPA) 내에 안전기준 마련 전문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기구에는 NEC·후지쯔 외에도 히타치제작소·일본IBM·일본유니스 등 대형 업체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안전평가 대상은 모뎀·통신

중계기기(라우터) 등 하드웨어와 기업용 PC운영체제(OS)를 비롯한 각종 소프트웨어 등이며 그 기준 마련에서는 정보기기의 종류별로 이용자 식별, 유통정보 암호화, 부정이용 추적 등 2백개 항목 이상에 7단계에 평가기준을 두고 있는 미국·유럽의 사례를 참고로 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통산성은 민간단체를 포함하는 복수의 평가기관 설립도 지원할 계획이며, 일본에서 최독한 안전평가가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구미평가기관과의 상호인증 협정 체결도 추진할 방침이다.

파워PC용 '알티벡' 기술 개발

미국 모토롤러가 인텔의 멀티미디어 기술인 MMX와 경쟁하게 될 파워PC용 「알티벡(Altivec)」 기술을 발표했다.

알티벡 기술은 파워PC에서 대규모 데이터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확장된 데이터 전송통로와 데이터 엔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알티벡의 이같은 역할은 162개의 새로운 명령어와 「벡터 유닛」을 통해 가능해진 것으로 모토롤러는 이 기술을 적용한 파워PC를 올 하반기부터 샘플출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모토롤러는 알티벡 기술을 적용한 파워PC가 인텔 MMX 프

로세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게 된다며 고성능 컴퓨터는 물론 음성인식과 네트워크, 통신 등의 분야로도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반도체레이저 개발

일본 후지쯔 산하의 연구개발 자회사인 후지쯔연구소가 적은 전류로도 비교적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반도체레이저를 개발했다.

후지쯔연구소가 개발한 반도체레이저는 극히 좁은 공간에 전자를 가둬두는 「양자상자」를 빛의 발진원으로하는 방식으로, 이 양자상자를 고밀도화해 적은 전류로 단일 레이저광을 발진할 수 있도록한게 최대 특징이다.

기본구조는 두께 1Nm의 갈륨비소와 두께 0.2Nm의 인듐비소를 합쳐 만든 화합물 반도체막이 번갈아 적층(積層)한 모양으로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크기는 직경·높이 모두 20Nm가 된다.

새 반도체 레이저는 레이저광을 발진시키는데 필요한 전류가량은 아래에서 31mA로 기존 양자상자형 반도체레이저의 5백mA보다 훨씬 적고, 출력은 기존의 절반(8mW)인 40mW이지만 광통신용 광원으로 실용화가 가능한 수준이다.

300mm 웨이퍼 개발

프랑스의 SGS톰슨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가 300mm 웨이퍼 가공기술을 개발하는 데 앞으로 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이미 네덜란드 필립스와 합작, 프랑스 크롤레스에 300mm 웨이퍼기술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는 이 지역에 5억 달러를 투자해 제2의 300mm 웨이퍼기술센터와 시험생산 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설립 될 웨이퍼기술센터는 내년 착공돼 2000년부터 300mm 웨이퍼 가공설비를 이용, 상보성 금속산화막반도체(CMOS)와 바이폴러CMOS 생산 기술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SGS톰슨은 이 기술센터에서는 6백여명의 인력이 앞으로 연구활동에 종사할 것이라며 자사는 물론 정부투자 연구소에서도 인력 등이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척력 35% 높이는 세탁기 신기술 개발

일본 히타치제작소는 수돗물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이온을 교환·제거함으로써 전자동세탁기의 세척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에 따르면 히타치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이온교환수지로 수돗물을 통과시켜 칼슘이온, 마그네슘이온 등 금속이온을 60% 가량 제거하고 수지내의 나트륨이온과 교환하는 것으로 보통 수돗물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 옷때 제거율을 35% 가량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히타치는 보통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금속이온이 세제 속에 있는 계면활성제의 작용을 저해해 왔으나 금속이온을 제거하는 장치를 통해 수돗물을 유연화함으로써 세제가 가지고 있는 세척력을 대폭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칩세트 '440BX'에 오디오 기능 부가

미국 인텔이 「440BX」칩세트의 저가 버전에 오디오 기능을 부가할 계획이다.

소식통은 인텔이 저가 PC칩인 「셀러론」과 함께 사용할 칩세트로 「440BX」저가 버전을 개발, 내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칩세트엔 오디오 기능이 부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3차원 그래픽과 통신기능 통합 계획에 이어 「휘트니」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텔의 오디오 기능 통합계획은 시스템업체들의 제조원가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개별 기능 제품 판매업체들의 입지를 약

화시키는 것이어서 인텔이 MS의 경우처럼 반독점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정용 매킨토시 '맥' 발표

미국 애플컴퓨터가 혁신적 디자인의 가정용 저가 매킨토시와 고성능 노트북PC인 「G3 파워북」 발표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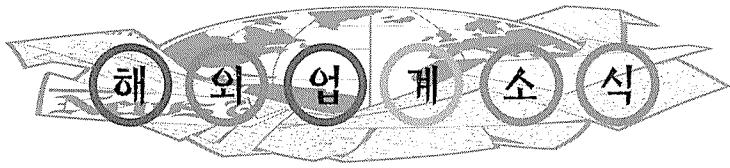
애플의 저가 매킨토시 「맥」은 모니터 내장형으로 초창기 매킨토시 모델과 유사한데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반투명 케이스를 채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233MHz 750파워PC G3 프로세서에 4GB IDE 방식 HDD, 32M 메모리, 33kbps 모뎀, 24배속 CD롬 드라이브 등을 갖추고 10/100베이스 T 이더넷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매킨토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USB)기술을 지원, 키보드·마우스 등 주변기기를 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제품가격도 1,299달러로 낮췄다는 것이 애플의 설명이다.

「맥」은 애플의 가정용 컴퓨터 시장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애플은 233, 250, 292MHz 파워PC를 탑재한 신형 「G3 파워북」도 선보였다. 이중 292MHz 750기반의 하이엔드제



품의 경우 노트북 중 최고속으로 83MHz 고속 시스템버스를 지원하며 14.1인치 대화면을 채용했고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롬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본 부품·소재업체 필리핀에 대대적 투자

일본 부품·소재 업체가 필리핀 현지 공장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일본 업체들의 對필리핀 투자 강화는 최근 아시아 지역의 경제 위기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현지 투자를 대폭 축소하거나 보류해 이 지역 공장의 가동률을 크게 낮추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가공장에서 조업해 온 업체들의 경우 울들어 잇따라 공장을 신축해 본격 가동에 나서고 있으며 공장증설을 통해 생산품목을 확대하고 종업원 채용도 늘려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미전기의 경우 자사 생산 거점으로는 가장 큰 필리핀의 세브미쓰미공장내에 이달말까지 제6공장등을 건설해 커넥터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품목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지난 80년에 설립해 코일, 트랜스포머, 모듈레이터, TV튜너를 생산하고 있는 미쓰미필리

핀에서는 최근 CD롬드라이브의 양산을 본격화한데 이어 리튬이온전지 모듈생산을 시작하는 등 생산품목을 크게 늘리고 있다.

NEC컴포넌츠필리핀스도 올 초 준공식을 갖고 향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PC용 고밀도다층 인쇄회로기판(PCB)과 자동차용 릴레이의 생산을 대폭 늘리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롬일렉트로닉스필리핀스도 「1608(1.6×0.8mm)」~「6432(6.4×3.2mm)」급 칩고정저항기의 양산체제를 갖춘데 이어 최근에는 칩반고정 저항기의 일관생산체제를 갖추는 등 저항기의 생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일본전산은 지난달 초 필리핀 공장인 니켈필리핀 내에 스피들모터용 정밀기계부품공장을 착공, 이 공장을 오는 9월까지 완공해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소재 부문에서는 지난 96년부터 대용량FDD용 콤포지트 슬라이더어셈블리(CSA)를 생산하고 있는 히타치금속이 향후 수요증가에 대비해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최근 제2공장등 건설에 착수했다.

스미토모특수금속의 선테크놀로지(STI)도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의 핵심부품인 보이스코일모터(VCM)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7월 완료를 목표로 공장증설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일본 업체들의 이같은 투자열기는 컴

퓨터주변기기 및 자동차 전장품에 집중되고 있어 향후 필리핀은 이 분야의 새로운 전자부품·소재 생산기지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세계 최소 칩서미스터 개발

일본 미쓰비시머티리얼은 노트북 PC, 휴대전화 등 휴대기기의 기간부품인 온도보상형수정발진기(TCXO)의 온도보상용으로 사용하는 세계 최소의 칩서미스터를 개발했다.

이에 따르면 미쓰비시가 이번 에 개발한 칩서미스터는 「0603(세로0.6×가로0.3mm)」급으로 자사의 종전제품에 비해 세로 0.4mm, 가로 0.2mm가량 작다.

미쓰비시는 이 칩서미스터를 오는 12월부터 월 1백만개 규모로 양산해 TCXO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